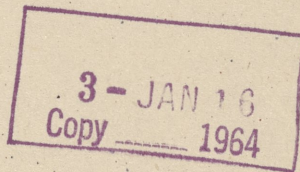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특집

17 호 9 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17 호 (231)
1963년 9월 (상)

차 례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번영의 기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5 년이 지나 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력사적 전취물이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 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비운을 영원히 씻어 버리고 당당한 독립 국가의 기치 하에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였으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 민족의 번영과 우리 인민이 향유하고 있는 오늘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륭성 발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공화국의 기치 하에 조선 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고, 이 기치 하에 우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으며, 이 기치 하에 우리 인민은 조상 대대의 세기적 숙망을 성취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남북반부 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15 년이란 세월은 극히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력사에도 있어 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들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들을 쟁취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면모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면에서 몰라 보게 변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에 걸쳐 하나의 꿈으로, 리상으로 생각하며 동경하던 많은 일들이 공화국의 기치 하에 우리 인민의 손에 의하여 현실로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이 완수됨으로써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 사회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지주도 자본가도 없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근절되였다.

공화국의 기치 하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가장 주요한 성과는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위대한 사업들을 자기의 손으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혁명의 성과적 전진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이미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조선 인민은 당과 정부의 령도 하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극복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락후하고 무력하였던 우리의 경제를 강력한 자립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웠다.

일제로부터 극심한 편파성과 기형성을 띤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해방 후 남북으로의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경제의 편파성과 기형성이 더욱 격화된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고 아주 절실한 과업이였다.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끊임 없는 파괴 활동과 자립적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내외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은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당은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화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자주적인 륭성 발전도, 인민 생활의 향상도 기할 수 없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관철시켰다.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날부터 자립 경제의 토대를 닦는 데 착수하였으며 전쟁의 준엄한 환경 속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전후 당과 정부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긴절한 과업을 해결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자립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특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전후 당과 국가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원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부문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가지게 되였다. 과거 일제 본토 공업의 부속물로서 일면적 부문들의 발전에 편중되였던 중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건재,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부문들을 모두 갖추었다. 현대적 경공업 공장은 물론 수공업마저 보잘 것 없던 우리 나라 전국 각지에는 방직, 일용, 식료 가공 등 현대적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 공업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고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는 다각적 농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공화국이 창건된 해인 1948년에 비하여 1962년에는 공업 총 생산액은 13.4 배로, 알곡 생산량은 근 2 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특히 공업 부문에서 과거 락후하였던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장성함으로써 그것들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였다. 1948～1962 년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7.4%로부터 23%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최근 이미 확립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장성시킬 데

대한 7개년 계획의 상반기의 과업이 성과 있게 추진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다면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에 최대의 력량을 경주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리용하여 민족 기술 간부들을 양성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오늘 우리는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명을 급속한 속도로 실현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을 청산하였으며 모든 부문들을 최신 기술로 급속히 장비하고 있다. 국내 기계 설비의 자급률이 작년에 벌써 92%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가 자체의 튼튼한 기술적 기초 우에서 확고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에 기초하여 자체의 튼튼한 원료 기지도 축성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만들어 내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대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적지 않은 원료, 연료들이 국내 자원에 기초하여 해결되는 길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력의 급속한 장성 강화에 의거하여 과학과 문화도 전면적으로 개화되고 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의 과학은 세계 수준에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의 민족 예술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조선 인민은 물질 문화 생활에서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다.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1949년에 비하여 1962년에 211%로 장성되였으며 전쟁 직후만 하여도 전체 농민들 중에서 빈농민의 비중이 40%나 되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오늘은 모든 농민들의 생활이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사회주의 국가 제도가 베풀어 주는 혜택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부하며 무상으로 치료 받고 있다.

공화국 창건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일어 난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혁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 도덕적 통일 단결은 사회주의의 기초 우에서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였으며 국가 기관들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련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적응하게 인민 정권 기관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당과 정부의 조치들이 성과 있게 실현됨으로써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문화 교양자적 기능은 전례 없이 강화되였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지도 체계의 개편은 우로부터의 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와 대중의 튼튼한 결합은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게 하였으며 당과 정부 주위에 한결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를 고도로 앙양시켰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킨 전 인민적 운동—천리마 운동은 바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과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공화국 정부가 마련하여 준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래일의 보다 큰 행복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튼튼한 경제력을 밑천으로 하여 보다 광활한 전망을 내다 보고 있다.

7개년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다. 우리의 공업은 각종 최신 기계 설비들과 생산 수단들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며 공업, 농업 할 것 없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은 더욱 현대적인 새 기술로 장비되고 힘들고 고된 로동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인민은 더 질 좋고 다양한 제품들, 발전한 사회주의 사회의 문명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공업과 농업으로부터 보장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내고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의 토대는 더욱 공고하여질 것이며 그의 위력이 인민 생활을 활짝 꽃피우게 할 것이다.

공화국의 기치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데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와 그로 하여 갖게 된 웅대한 래일의 전망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며 파탄시키려고 책동하던 온갖 적들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날로 륭성 발전하는 공화국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 강화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작용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방안은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투쟁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의 기치로, 행복과 번영의 보금자리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지난 15 년간에 남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과의 세력 관계는 혁명 발전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북반부 형제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에 고무되면서 영웅적 항쟁에 궐기하여 리승만 괴뢰 정권을 붕괴시켰다. 1960년 4월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였으며 미제의 침략 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였다.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은 더욱 제고되였으며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4월 봉기 이후 광범한 인민 대중은 조국 통일을 실현하지 않고는 착취와 빈궁, 기아와 무권리,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남북 교류와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군중적 투쟁이 힘 있게 발전하였다. 대세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인민 대중에게 급속히 유리하게 진전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여 보려고 파쑈적인 군사 독재를 수립하는 길에 들어 섰다.

군사 독재 정권의 수립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지위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것은 파국에 처한 자들의 절망적인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괴뢰 정권의 《합법적》 교체로써도, 폭력에 의한 군사 테로 독재의 수립으로써도 파국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수 없으며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사 파쑈 분자들이 집권한 이후 2 년이 경과한 오늘, 남조선에서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인하여 민족 공업은 여지없이 파산 당하였다. 《군사 정변》 후 2 년 동안에만도 공업 생산은 9% 감소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3 분의 2 밖에 안 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적인 농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촌 경리도 극도로 황폐화되였다.

작년도 알곡 수확고는 일제 시기에 비하여 43%나 감소되였다.

식량 기근은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의 파탄과 미제의 략탈로 인민들은 전대 미문의 생활고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의 수 많은 겨레들이 사랑하는 향토를 등지고 다시 돌아 올 길 없는 수천 수만 리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고 있다.

온갖 패덕과 패륜 행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인민들은 래일에 대한 희망도 기약도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에 일떠 서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갈수록 광범한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진출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 상 개선을 위한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략탈적인 농업 정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점차 앙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남조선의 청년 학생, 인테리들과 광범한 대중 속에서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 자립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양코들이 안하 무인격으로 활개치는 땅, 로동자,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땅, 조국 통일을 요구한다 하여 인민들이 학살되는 땅—오늘의 남조선에서 어찌 인민들이 투쟁을 멈출 수 있겠는가!

미제는 고조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무마하며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 파쑈 도당들을 사촉하여 기만적인 《민정 이양》 연극을 꾸미는 한편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각종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사촉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도당들의 이 모든 책동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인민들을 더욱 큰 재난과 고통 속에 몰아 넣는 결과 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며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으며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리익의 대표자이며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다.

산 설고 물 설 이국 땅에서 오래 동안 민족적 차별 대우와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60만 재일 동포들은 오늘 공화국의 륭성 발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벌써 8만 여 명의 재일 동포들이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으로 돌아 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계속 귀국하고 있다.

지금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조국에로의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기 조국에로 자유로이 왕래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가 하루속히 실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지난 15 년간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대외 정책과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로 하여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국제적 지위가 전례 없이 공고화되였다.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며, 착취와 압박,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설정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이러한 대외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앙양시키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 특히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 나 새로 독립한 많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 및 경제 문화적인 교류 관계를 강화하게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외 온갖 반동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도 날로 높아 가는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을 훼손시킬 수 없었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의 부단한 발전을 저애할 수 없었다.

공화국은 이미 수십 개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무역을 진행하는 나라들의 수는 날로 증대되여 가고 있다.

지난 기간 전반적 국제 정세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은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붕괴 과정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두 개의 방대한 력량은 서로 지지하고 고무하면서 력사 발전의 길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의 면모를 변경시키고 있다.

이와 반면에 제국주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며 제멋대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사회주의 진영의 부단한 강화,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 투쟁의 앙양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궁지에 빠져 들어 가게 하고 있다.

현 국제 정세 발전의 이 모든 추세는 현 시대를 투쟁의 시대,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는 시대로 평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의 정당성을 실증하고 있다.

현 시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력사 발전의 필연적 길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의 주되는 내용, 주되는 방향, 주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철저한 계급적 립장에서 출발된 것이다.

로동 계급은 언제나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착취와 억압의 근원을 청산하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을 해방하려는 립장에 서서 정세를 고찰하고 분석하며 유리한 정세는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불리한 정세는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항상 세계 혁명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와 반면에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과 같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대를 《평온한 시대》, 《투쟁이 없는 시대》, 《평화적 협조의 시대》라고 보면서 혁명 투쟁에 적극 나설 각오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 력량을 조직 동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이 혁명 투쟁에 나서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준동은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세계 반동의 중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미제는 날이 갈수록 교활하고 모험적인 전쟁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날뛰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여전히 전면적인 전쟁과 핵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부분적인 핵 시험 금지 조약의 연막 뒤에서 핵 무기의 시험을 계속하고 그 생산과 축적을 증가시키며 핵 전쟁 준비를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핵 무기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으로써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책동을 조금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현실 발전의 모든 사례는 《현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였다》고 떠드는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제국주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은 자체 내에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의 로골화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립장에서 출발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력량, 민족 해방 운동의 력량, 국제 로동 운동과 모든 평화 애호 력량의 공동 투쟁에 의거할 때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능히 좌절시키며 세계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세계 모든 피압박 인민들, 피압박 민족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시켜야 하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 력량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이며 평화의 강력한 요인이다.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 왔고 민족 해방 투쟁을 성심 성의 지지하여 왔다.

동시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특히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자기의 대외 정책 분야에서 확고부동하게 천명하여 온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계급의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위력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도의 공통성과 동일한 사상, 동일한 투쟁 목표로 하여 하나로 굳게 단합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특징 짓는 제국주의 나라들 호상간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나라들 호상간에 있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고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서로 음해하거나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제국주의자들처럼 원조를 미끼로 하여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훼손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정부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형제 당들 호상간에 있어서 자주성과 평등, 호상 지지와 협조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찌또를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중국 깜빠니야》에 장단을 맞추면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리간시키며, 반목과 불신임을 조성하며 중상 비방하며 고립시키려고 비렬한 책동을 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원칙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형성된 오늘날 어느 한 나라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 통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 의무라는 우리 당의 명제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리익에 항상 충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명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 진보적 인류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민들 속에서 광범한 공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할 것이며,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세계 각국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자기에게 부과된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철두철미 충실할 것이다.

지난 15 년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국내외 원쑤들과의 끊임 없는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였으며 중첩되는 준엄한 시련 속에서 륭성 발전하여 왔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한 국제 반동들은 공화국을 그 요람 속에서 압살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였으며 국내의 원쑤들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근로 인민의 국가를 말살하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쥔 조선 인민은 자기의 혁명적 국가 주권을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다.

오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거연히 서 있으며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다.

공화국의 창건과 그의 발전은 자기 손에 주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들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계속 공화국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이며 이 기치 하에 더욱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을 이 땅 우에 건설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조선 인민의 앞길은 휘황 찬란하며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공화국 정권은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김 화 종

공화국의 창건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 상 처음으로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 주권을 가지게 되였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각계 각층 인민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 정권을 수립할 데 대한 로선은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으며 거기에서 이미 그 전통이 이룩되였다.

해방 후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혁명이 사회주의 단계로 들어 섬에 따라 이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발전시켰다.

공화국 정권의 수립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 정권 발전의 새로운 시기로 되였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무기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의 무기인 공화국 정권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가차없는 독재를 실시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철저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이다.

《우리의 국가는 인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물질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우리의 국가는 인민이 창건하였고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 있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국가 사업에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1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이며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라고 가르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력사 상 처음으로 전체 인민 대중이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주권을 자기 손에 장악하며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 인민의 주권과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에서 비로소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 대중은 주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온갖 물질적, 문화적 부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모든 물질적 및 정신 문화적 복리도 누리게 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

적 민주주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대상, 범위에 있어서나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최대한의 민주주의로 된다.

공화국 정권 하에서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

근로 대중은 우선 공화국 정권 하에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은 착취 계급들을 청산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주권 기관을 구성하고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참가하며 자기들의 로동의 결과를 향유할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와 권리는 인민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물질적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능력에 따라 로동하고 로동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문화적 휴식과 무상 치료, 무료 교육 기타 사회 문화적 시책으로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받으며 언제나 보다 훌륭한 래일을 맞이하게 된다.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기만성은 근로자들이 주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그들에게 소위 《권리》를 행사할 아무런 물질적 수단도 주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권리—로동과 휴식의 권리, 자기 로동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권리가 없이는 진실로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생활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정신 문화 생활에서의 자유, 개성의 자유도 보장한다.

근로자들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개성,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자유로이 발전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공화국 정권 하에서 광범한 근로 대중은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고도의 자각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공화국 정권 하에서 향유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광범한 대중과 토의하였으며 우리의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인민 정권이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며 그들을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 형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71 폐지)

인민 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관리 운영은 바로

대중 자신의 사업이다.

우리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모든 국가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집단과 사회를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일이며 자기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각자가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 받는다.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일치, 자기 사업의 의의에 대한 높은 자각, 바로 여기에 근로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적극성과 자각적 열성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인 천리마 운동은 국가 사업에서의 근로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을 가장 뚜렷이 보여 준다.

우리 인민의 고도의 정치적, 로력적 열의와 창조력의 발현은 생산과 기술, 과학과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낳고 있으며 우리 조국을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시키고 있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는 … 근로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무대에 참으로 그들의 대다수를 끌어 넣을 가능성을 지어 준다. 인민 속에 있는 이 재능은 아직 손을 대여 보지 않은 무궁무진한 샘인데 자본주의는 이 재능을 대량적으로 유린하고 억압하고 질식시켰던 것이다.》(레닌 전집 제 26 권, 500 페지)

소수 착취자들, 기생충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수백만 대중이 피땀을 흘려야 하며 국가 사업에서 배제되여야 하는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의 발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 주권 하에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 자각적 열성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다.

국가 사업에서의 대중의 자각적 열성은 생산자 대중이 직접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데서 제일 높은 단계에 도달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가장 높은 지표로 된다. 우리 공화국 정권 하에서는 이것이 이미 현실로 되고 있다.

오늘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생산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업 관리 운영에까지 참가하여 집단의 사업 전반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여기서는 생산자들이 계획화 사업, 로동 행정 사업들에 직접 참가하며 내부 재산제 실시, 설비 관리 사업, 정량 사업, 검사 사업들을 자체로 수행하는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보수를 받는 일 이외에 국가 및 경제 관리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이 어떠한 높이에 도달하였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국가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벌써 권리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도덕적 의무로, 생활 상 요구로서 습관화되는 길에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 정권 하에서는 적대 분자를 제외한 전체 인민 대중이 남김 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인민을 위해서는 벌써 하등의 제한도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당과 인민 정권은 혁명과 사회주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정치적 처지 여하를 불문하고 남김 없이 교양 개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며 공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그들에게 광명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전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계급적 립장을 떠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계급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적아를 엄격히 구별하고 인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그 폭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제한 없이 포괄하고 있으며 그 심도에 있어서 생산자 대중이 직접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그러한 높이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행사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더 완전한 형태란 있을 수 없다. 공화국 정권은 가장 높은 민주주의,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2

공화국이 걸어 온 15 년의 행정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사실로써 확증하여 주었다.

공화국 정권은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국내 반혁명 세력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반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반혁명 세력은 우리를 반대하는 책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북반부에서는, 착취 계급이 이미 청산되였으나 과거의 착취자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살아 있고 남반부에 적이 있고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적대 분자가 없을 수 없다.

인민 정권은, 우리의 사업을 파괴하며 쟁취된 인민의 락원을 도로 빼앗으려 하는 내외의 원쑤들의 기도를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만 인민 대중에게 그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민 정권은 또한 적들의 기도에 리용될 수 있는 낡은 사상과 관습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에 대한 진압, 비프로레타리아적 요소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자들, 적대 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전체 인민을 위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며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시도는 전적으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야망에 복무하는 것이다.

부르죠아 국가를 순전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세계로 보며 사회주의 국가를 순전한 《독재》의 세계로 묘사하면서 《독재》에 대한 공포로써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떼여 내려는 것은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이 매여 달리는 상투적 술책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부르죠아지와 온갖 착취자들을 청산하고 착취와 압박을 근절함으로써 근로 대중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온갖 물질, 문화적 복리까지도 보장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다만 착취자들에 대한 독재를 근로 대중에 대한 《독재》로 믿게 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나아가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고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조장하며 이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진화》라는 구호 밑에 자본주의의 복구를 기도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마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의 기구이며 그것을 약화시켜야 민주주의가 발양되는듯이 지껄이는 찌또를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립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1956년 웽그리야 사변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전체 인민을 포괄하지 못 하는 어떤 제한된 민주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넘어 서야만 비로소 최고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듯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도 최후의 국가 형태가 아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어떤 보다 높은 형태의 국가가 출현하는듯이 간주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국가와 민주주의가 계급적이라는 것을 더 없이 강조하였다.

최후의 계급적 국가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하였을 때 그것의 조락으로써 국가는 영원히 소멸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하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계급적이면서 벌써 적대 분자를 제외한 전체 인민 대중을 포괄하는 것이며 그것이 최고도로 발양되였을 때에는 즉 완전한 공산주의에로 도달하였을 때에는 무용지물로 된다.

만약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끝남으로써 그 어떤 보다 높은 형태의 독재와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결국 초계급적 국가에로 문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론의가 초계급적인 문제 설정으로 되지 않는 듯이 떠들면서 마치 자신들이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국가를 항상 《초계급적인》, 《만민 평등》의 국가로 묘사하는 부르죠아적 론의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론의의 주장자들은 사실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아를 뒤섞어 놓고 인민과 인민의 원쑤들 간의 계선을 말살하며 계급적 립장을 포기할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론의의 반동성을 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공화국 정권이 걸어 온 15 년의 행정은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적 지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와 민주주의가 통일되여 있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생산의 무정부성, 류통과 소비의 자연 발생성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이라면 사회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에는 생산, 분배, 류통, 소비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친 중앙 집권적 지도로 되여야 한다.

각계 각층 수백만 인민들의 모든 활동은 우선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의 실현이라는 종국적 목적에 복종되여야 하며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사회를 관리 운영하자면 매개 분야, 매개 단위들의 사업이 유일적인 의지에 복종되여야 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사실 상 사회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자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는 근로 대중의 자유와 창의 창발성, 지방적 권한과 창발성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 하면 국가는 인민 자신의 국가이며 국가와 개인, 중앙과 지방, 전체와 부분은 리해 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통일되여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 정부는 국가 관리 및 경제, 문화 건설에서 언제나 중앙 집권적 지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고 그에 의거하였으며 제반 조건의 성숙에 따라 지방의 권한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최근 년간에 당과 공화국 정부가 도와 특히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것은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지방마다 더 많은 생산 기업소들이 일떠 서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장되며 현대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각 도의 경제 사업은 해방 후 첫 시기에 있어서의 전국적인 경제 사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 서고 있다. 이것은 바로 중앙에서의 유일적이고 집중적인 통제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적응하여 중앙급 국가 기관에서의 일련의 공업, 농업 관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도 인민 위원회들의 기구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에 농촌 경리 위원회, 지방 산업 총국 등 경제 관리 기관들을 설치하고 군에는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지방 산업 지구 경영국(몇 개 군을 단위로)을 설치하였다. 또한 공장들에는 현대적 사회주의 공장 관리 체계로서의 대안 체계가 확립되였고 협동 농장들에도 청산리 방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리 운영 방법들이 도입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들에 의하여 중앙에서의

통일적, 집중적 지도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 기능과 창발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와 자각적 열성이 더 높이 발양되고 있다.

경험은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가 경제, 문화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자각적 열성을 제고하며 그들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물질 문화적 복리를 더 잘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제쳐 놓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생각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유고슬라비아의 찌또 도당은 중앙 집권제 원칙도 거부한다.

그들은 중앙 집권적 지도를 《관료주의의 근원》으로 외곡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는 구실 밑에 《지방 분권화》를 내세우고 있다.

부르죠아 독재에서는 중앙 집권제가 필연적으로 근로 대중에 대한 관료주의적 억압 기구로 된다. 찌또 도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부르죠아 국가의 그것과 슬쩍 바꾸어 놓으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비방 중상하려 한다.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은 중앙 집권적 지도와 모순될 수 없으며 또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 수정주의자들이 중앙 집권적 지도를 포기하거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려는 구실로서 《지방 분권화》를 내세울 때 그것은 결국 나라를 자유주의화, 부르죠아화의 길로 내몰 따름이다. 거기에서 민주주의의 발양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가가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그들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집중적,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와 복리가 진실로 보장될 수 없으며 그러한 곳에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이 발양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고슬라비아의 현실은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만 개화 발전할 수 있다.

공화국의 인민 정권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가차없는 독재를 실시하고 경제, 문화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철저한 중앙 집권적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3

공화국 정권의 모든 활동은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철두철미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기의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고 있다. 당의 향도적 역할은 인민 정권으로 하여금 원쑤에 대하여는 무자비하고 인민 대중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인민 정권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수응하여 국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그 기관들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그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국가의 계획화 체계에 인입된 새로운 조건에서 당은 국가 기관들이 과거의 개인 경리를 지도하던 낡은 체계를 사회주의 경리를 지도하는 체계로 개편하였다. 국가 기관들 특히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경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이 취해졌다.

당은 또한 경제 발전에 비하여 일'군들의 지도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에 대처하여 간부들의 양성과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국가 기관들이 자기 하급 기관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더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인민적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최근 년간 공업 및 농업에서의 기술 조건과 대중의 의식 발전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게 국가적 지도에서 당의 군중 로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구현시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를 확립하였다.

새 공업 지도 체계에서는 당 위원회가 기업 관리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되여 있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 관리 운영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자발적 열성을 가장 훌륭히 발휘시키는 데 있다.

경험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만이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국가, 경제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과거 사회의 잔재를 철저히 근절할 수 있고 근로자들 속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반박으로 된다.

공화국 정권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당과 인민 정권은 조성된 조건을 훌륭히 리용하며 또 적극적으로 조건을 조성하면서 생산 관계의 개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적 경제 지도를 확립하였으며 이의 강화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우선 인민 정권의 정치적 기초로서의 로농 동맹과 각계 각층 인민의 통일을 강화하며 나아가서 그의 경제적 지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현실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유일적 지배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공고화, 민주주의의 발양을 위하여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인 경리를 그대로 두고도 공산주의에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조장 발전을 면할 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발양을 저애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자체의 정치적 지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있다.

당과 공화국 정권은 또한 일찍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이의 관철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여 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확고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는 국가의 정치적 자주를 견지하고 인민의 정치적 자유와 물질 문화적 복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인민 정권은 또한 당의 영도 하에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계급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과학적 지식과 기술, 문화 소양을 갖춘 새 형의 인간으로 교육 교양하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도의 계급 의식과 애국주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반석 같은 정치 도덕적 통일의 사상적 기초로 되고 있으며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며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일부 나라들에서만 승리하고 세계에 제국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국토가 량단되고 혁명이 전국에서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대중의 계급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현 정세는 이 문제를 특히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계급 교양을 소홀히 하며 이를 떠나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해서 떠드는 것은 사실 상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 양식의 침습,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방임하는 것이며 《평화적 진화》의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전복하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부르죠아 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으려고 기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 주는 것으로 된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대중의 의식성, 특히 그들의 계급 의식으로 하여 반석 같이 공고하다.

* *

프로레타리아 독재로서의 공화국 정권은 오직 이것만이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부단히 증진하는 인민의 복리와 조국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공화국 정권은 이것만이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유일한 해방의 기치이며 등대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등대로 하여 남반부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침략 기도와

괴뢰 《정권》의 반인민적 본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반미 구국 투쟁의 길로 확신성 있게 전진할 수 있다.

미제 식민지 통치와 괴뢰 《정권》 하에서 민족의 자주, 경제의 자립, 인민의 살'길과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산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로 될 것이다.

오늘 미제 침략자들은 남반부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민족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는 예속된 《정권》을 가지고는 민족 경제의 파산과 예속화를 면할 수 없다. 18 년의 력사는 이것을 너무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정치적 자주가 없고 경제적 자립이 없고 인민이 생사 지경에서 헤매는 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드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다.

대중은 절량에 아우성치고 쌀값은 불과 반 년 동안에 3 배나 폭등하는 심각한 사태에도 아랑곳 없이 소위 위정자들이 《정권》 쟁탈을 위하여, 《민정 이양》을 위하여, 《공명 선거》를 위하여 여념이 없는 것, 이것을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이 근로자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내거는 《민주주의》란 구호와 조금도 다름 없는 것이다.

리 승만 때의 《민정》도 그 후의 《군정》도 다 같이 인민의 권리, 인민의 자유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다.

소위 위정자들의 그 어떤 민주주의 놀음도 더는 남반부 인민들을 우롱하지 못할 것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애국적 력량은 공화국의 기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쓸어 버림으로써만 자신들의 해방을 쟁취할 것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것이다. 그 때에야말로 전체 조선 인민은 하나의 인민 정권 아래서 나라의 주인으로 될 것이며,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창조적 재능과 힘은 더욱더 힘차고 무진장하게 발양될 것이며 행복은 한량 없고 우리 조국의 번영은 더욱 무궁할 것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김 한 준

1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과 사회계에서는 경제의 자립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념려하는 사람들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외세에 예속된 데 있다고 일치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일보》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주 정신, 자주 판단, 그리고 자주 처리만이 자주 민족 국가를 자주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대 원칙》이라고 하였으며 《부산 일보》는 《정치적 자주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하루 속히 성취하여 외원과 외군에 의지 하지 않고 사는》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한 심심한 우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남조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적극 지지 환영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서게 된 것은 해방 후 18 년 간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생활 체험에서 나온 필연적 귀결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무엇이며 이로부터의 출로는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게 되였다.

례컨대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해방이 되였다고 감격하던 그날도 벌써 18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파산 뿐이다… 우리는 왜 이 꼴이 되였는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가? 우리의 무지 때문인가? 그보다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외세 때문인가?》(《동아 춘추》 1963년 4 호)라고 썼다.

지난 18 년간, 미 군정과 리 승만의 개인 독재와 장 면의 《민주 정치》와 박정희의 군사 통치를 다 겪어 본 남조선 인민들은 남조선이 미제에 예속되여 있는 한, 그리고 그 주구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 앉아 있는 한 사태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재난과 고통의 화근을 뿌리 뽑고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책을 요구하여 나서기에 이르렀다.

남조선 인민들이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서게 된 것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의 거대한 혁명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로 남조선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든 북반부 인민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꾸려 나가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지금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한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여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내고 대규모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있다. 중공업의 지원 밑에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들로 입고 쓰고 살게 되였다.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협동 경리로 전변된 우리 농촌에서는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북반부에서는 이미 식량 문제가 해결되였다.

세기적 락후와 빈궁,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 난 우리 인민은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래일의 보다 행복한 생활에 대한 전망을 내다 보면서 혁명적 랑만에 충만되여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날로 륭성 발전하는 공화국 북반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하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희망이며 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는 등대이며 그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방책은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강력히 고무 추동하였다.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방안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과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조국 통일의 새로운 방안과 그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 제안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조국 통일을 실현하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밝혀 줌으로써 반미 구국 투쟁을 더 한층 발전시켰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은 우선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위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주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북의 어느 일방이 자주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외세의 예속 하에 있을 때에는 자주적 통일이란 실현될 수 없다.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압력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인민의 손에 자주권이 없고 강점자 미제가 완전한 주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에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서 벗어 나려는 불타는 지향이 맥박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폭로 비판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주입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각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그 사상과 요구의 정당성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주요 특징은 우선 이 운동이 공개적인 반미적 성격을 띄고 발전하고 있는 사실이다.

4월 인민 봉기 전까지만 해도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 예봉을 미제 침략자들에게 돌리지 못 하고 있었다. 그들은 리 승만 독재 정권만 전복되면 만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후 두 차례나 괴뢰 정권이 교체되였으나 그들의 처지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현 파국적 사태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괴뢰 정권을 전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 그 자체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예봉은 직접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데 점차 돌려지게 되였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항거하는 기세는 우선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는 《원조》를 배격하는 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과거에도 침략적인 미국 《원조》를 비난하여 왔으나 그 때는 주로 미제의 《원조》가 가져 온 후과의 개별적 측면, 례하면 기간 공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재를 주지 않고 소비재와 잉여 농산물만 준다는 불만들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며 남조선에 대한 《원조》 정책의 개선과 《원조》 자금의 효과적 리용을 주장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원조》가 가져 온 후과의 개별적인 측면만을 폭로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조》의 침략적 본질과 그 후과를 전면적으로 폭로 비판하면서 《원조》 자체를 반대 배격하여 나서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하여 로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자행하였으며, 군사적으로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 체계에 튼튼히 얽매여 놓았으며 경제적으로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상품 시장으로, 원료 원천지로 전락시켰다고 단정하면서 미국 《원조》는 본질 상 략탈적이며 침략적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미제는 1962년까지 남조선에 33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었는데 한편 이 기간에 그들이 남조선의 재부를 략탈한 액수는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80억 딸라에 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출판물들이 바로 미국 《원조》를 남조선에서 《자립성 상실의 늪 속에 국민을 침몰》시키고 《사회적 질식》을 초래케 한 기본 요인이라고 규탄하면서 미국 《원조》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몽땅 거지》로 되였다고 항의해 나서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대한 항거 기세는 미제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을 반대하여 나서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자는 사실 상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는 워싱톤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의 괴뢰 정권에 주구들을 갈아 앉히고 그들을 지휘하여 괴뢰 정권의 주요 《시책》들을 작성하며 남조선 군대를 지휘 감독하며 경찰 특무들을 통솔하는 것으로부터 남조선의 산업, 재정, 금융, 교통 운수, 농촌 경리,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4.19 전후의 맥코노이, 《군사 정변》 전후와 최근 시기의 버거 등의 거동은 식민지 총독으로서의 미국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남조선의 《경향 신문》도 미제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남조선의 오늘의 정정은 그 한 초점을 미국 대사의 거동에 두고》 있는바 《한국에 정치적 위기가 대습할 때마다 국민은 미대사관 주변의 동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리유는 설명이 무색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제의 내정 간섭과 압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일시적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장구한 기간 울적되였던 그들의 심각한 불만과 첨예화된 민족적 모순의 반영이다.

반미 감정은 실지 행동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바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군 부대 및 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침략 군대에 대한 기습,살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포항에서는 6명의 미군이 조선 청년들에게 어더 맞아 혹심한 부상까지 당하였으며 지금 남조선에서는 월 평균 20~30 명의 미군이 조선 청년들의 복수의 주먹에 의하여 살상 당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팽배히 끓어 오르는 자주 정신과 비등하는 반미 감정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남조선에서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은 또한 대중적 성격을 띄고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한 계층이나 몇몇 인사들의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및 지식인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대중적 요구로 울려 나오고 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4.19 3 주년을 전후하여 수천 명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대중적인 집회, 시위를 단행하고 미제의 로골적인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 더불어 정치적 간

섭과 같은 모든 외국의 영향을 배격한다》고 웨쳤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원동력인 로동자, 농민들도 자주, 자립을 위하여 근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례컨대 지난 5월에는 《대동 공업사》 로동자 100 여명이 국산품을 사용할 대신에 외래품에 의존함으로써 자기들을 실직의 위협에 몰아 넣고 있는 군사 《정권》의 처사를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일부 지방 농민들도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자립 경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 일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중앙급 신문, 잡지들과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발간되는 지방 신문들까지도 한결 같이 외세 의존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요구하는 사설, 론설들을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은 다만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완강한 투쟁에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이 내정 간섭으로 자명해진 이상 우리는 씻을 수 없이 모욕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민족 자립의 대도(大道)를 향하여 유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일로 매진해야 할 력사적인 책임감을 행동으로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민족 자학(自虐)에 안일할 수 없으며 민족 자립에 가해지는 압력에 좌시할 수 없다. 민족의 독립과 자립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는 생색(生色)을 낸다는 민족 의식의 발동을 고수해야 할 것이며 그릇된 한미 우호의 길을 광정(匡正)하여 새로운 세대에 호흡하고 싶으며 세계의 광장에서 락오자의 고독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떳떳한 독립국으로서 보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다…우리는 참된 안정을 위하여 기백 있는 저항을 펴야 한다》(《부산 일보》 1963. 3.27)

광범한 독자망을 가지고 있는 출판물들의 이와 같은 론조는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이 적극적인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할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점차적이나마 대중의 위대한 혁명적 진출이 배태되여 가고 있다.

정치 투쟁에 일떠 선 남조선 인민들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더욱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가고 있다. 이것은 대중의 정치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지향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국토와 민족의 분렬은 실로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전대미문의 도탄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헤여져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나기는 고사하고 생사조차 알길이 없으며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교류가 가로 막혔다. 심지어 단일한 민족인 우리 남북 조선 인민의 생활 양식과 언어와 문'자마저 달라져 가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이 갈망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원흉은 미제 침략자들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 가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 무기를 반입하여 새 전쟁 준비를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 흉악한 침략 책동을 엄페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로 소위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관한 진부한 구호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시기 실제적 경험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이 떠드는 소위 《유엔 감시 하의 선거》란 결국 조선의 통일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북진 통일》, 《승공 통일》론과 아무런 본질적 차이도 없는 것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은 통일의 방해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북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서고 있다.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하여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도 조국을 분렬시키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난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는 사설, 론설들을 자주 발표하고 있다.

오늘 자주, 자립을 주장하는 남조선 출판물들의 론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반공》 사상의 자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출판물들은 반쏘 《반공》을 강요하며 조국을 분렬시키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난하면서 조국 통일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는 점이다.

례하면 《부산 일보》는 《반공》과 《자유》의 구호 하에 남조선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말살하고 남조선을 공화국 북반부와 사회주의 진영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전락시킨 미제 침략자들을 신랄히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주, 자립, 자유, 반공이 확연히 구별되지 못한 채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야릇한 언어의 공전(空轉) 시대에 사는 습성이 붙어 버렸고 인공 위성도 쏘련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식의 객관성과 주체 의식을 상실한 말 못할 〈타부〉 속에서 호흡하게시리 길들어 버렸다. 이 대미 일변도(對米一邊倒)만이 어째서 〈반공〉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서방 진영의 교두보〉임을 암송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 온 것이다.》(1963.3.2)

잡지 《신사조》는 조국 통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였다.

《비옥한 평야, 풍요한 곡창 지대를 가진 남조선과 무진장의 공업 자원을 가진 북조선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분단은 량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공업 북조선의 상실로, 순전한

농업국으로 전화하여 공업화의 길과 자립 경제는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1963. 1 호)

조국 통일에 대한 요구는 비단 남조선 출판물들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집회들에서의 투쟁 구호로써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 대학교 학생 3,000 여 명은 《4.18 3 주년 기념식》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현 《정권》 당국자와 구정치인들을 모두 불신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오늘 외세를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절박한 념원으로 튼튼히 안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 주체적 힘에 의하여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 민족적 요구와 밀접히 결합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으며 더욱 심화 발전하고 있다.

이 투쟁은 그 요구의 내용으로 보아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 독립을 지향하는 반미 애국 투쟁이다.

물론 이 투쟁이 아직까지는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대중적인 행동에로까지 발전하지 못 하고 주로 사상 계몽 운동의 단계를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철저한 반미, 자주, 자립 사상과 조국 통일에로의 불타는 지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투쟁이 또한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자조, 자주적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히 끓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동아 일보》 1963.3.7)을 자인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지금 비록 사상 계몽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미구에 남조선에서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과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함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계몽 운동의 단계에서 급속히 탈피하여 대중적인 정치 투쟁, 미제를 몰아 내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단계의 높이에까지 올려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 진리를 반영한 정당한 사회 리념이라 할지라도 실천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 리념은 다만 공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며 현실을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도 례외로 될 수 없다.

지금은 다만 모순된 남조선 현실을 비판하고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승리는 오직 실천적인 투쟁을 요구하며 또한 실천 행동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빼앗긴 자주, 자립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기 위한 전 군중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의 철거는 유린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선결 조건으로 된다. 외래 제국주의 침략군을 자기 강토에 남겨 두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더우기 침략과 략탈의 화신으로 되고 있는 흉악 무쌍한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머물려 있으면 있을수록 파국적 위기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인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기만 책동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주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여야 한다.

미제 강점이 계속되는 한 《군정》이건 《민정》이건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남조선 《정권》에 누가 들어 앉든 괴뢰 정권으로서의 그 본질은 변경할 수 없다.

진정한 자주권을 가지자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몰아 내고 인민들 자신이 발동하여 자기의 의사를 대표하며 자기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정권이 수립됨으로써만 진정한 독립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 등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적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파쟁을 일삼는 정상배들은 민족과 인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군중 속에서 인민 대중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군사 정권도 보수 정객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인민 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당과 지도자와 정부를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때라야 비로소 남조선에서 민족적 자주가 실현될 것이며 만사가 민족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결정되고 처리될 것이다.

정치적 자주권은 경제적 자립이 안받침되지 않고는 보장될 수 없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외세 의존은 오직 파멸을 가져 올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원조》와 그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반대 배격하고 자생 자결해야 하며 특히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실현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남북이 호상 유무 상통하고 경제 문화 교류

를 실현하며 련방제를 실시한다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령락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자주적 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남반부도 북반부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한다.

량편이 다 같이 자주적이며 자립적이여야만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완전한 자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력사 상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민족적 독립을 성취한 전례는 없다.

우리 나라 력사는 이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리조 말에 이르러 봉건 지배층은 외래 침략 세력이 물 밀듯 밀려 들 때 일치 합심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며 침략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 서로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갈투 싸움만 하다가 결국 나라를 일제의 독아에 집어 넣었다.

해방 전 구미 렬강의 《선심》을 바라며 《청원》이나 《애걸》로 그 어떤 독립을 달성하려던 많은 정객들의 모든 시도가 제국주의자들의 우롱물로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해방 후에도 리 승만, 장 면, 박 정희 등 력대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 외세에 아부 굴종하고 그와 야합함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를 오늘과 같은 파국에 처하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무권리와 인간 생지옥의 도탄 속에 빠지게 하였다.

우리는 이 쓰라린 력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외세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제 나라 제 살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에 맡기겠는가.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 미국이 생기기 수백 년 전부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첨성대, 거북선 등을 비롯하여 수다한 과학적 발명과 문화적 창조로 세계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재능 있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마수가 뻗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위기를 구원해 낸 애국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본 침략자들을 격멸한 임진 조국 전쟁, 3.1 운동, 광주 학생 운동은 모두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페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5 여 성상에 걸쳐 백두의 준령과 장백의 밀림에서 갖은 난관을 이겨내며 반일 무장 투쟁의 홰'불을 높이 추켜든 항일 유격대의 불멸의 위훈과 업적, 고귀한 혁명 정신은 조선 민족의 영웅성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되고 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미제의 침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였으며 전후에도 북반부에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했으며 조국의 무한한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충천한 기세로 질풍 같이 내달리는 위대한 천리마 시대를 열어 놓았다.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한히 고무되면서 남조선 인민들이 피의 항쟁으로 미제의 주구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전복한 것은 조선 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바로 이런 조선 인민이 일치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남조선에서 횡포무도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양키 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 통일을 실현 못 할 리유가 어데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민족 해방 투쟁이 승승장구하는 혁명의 시대, 폭풍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내외 정세는 우리 인민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어찌 이 위대한 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굴종할 수 있으며 자기 강토에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수모와 멸시와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그대로 감수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도탄에서 벗어 나는 길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민족의 자결과 자주를 실현해야 하며 이 기초 우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우국지성이 있고 민족적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남조선에서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이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모두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 통치 세력을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일떠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추켜 들자.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테리, 기업가, 상인 등 모든 애국 력량은 민족 자결, 자주, 자립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을 십 배, 백 배로 강화한다.

단결된 인민의 힘은 원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이 생생하게 실증하였다.

우리가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책동을 반대 배격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면 그들이 제아무리 간악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배겨나지 못할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지금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고 헤매고 있으며 대중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된 인민의 힘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천리마 운동과 자력 갱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후 15년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실로 《천지 개벽》과도 같은 대변혁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들은 천리마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령도의 현명성,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천리마의 나라》, 우리 인민을 가리켜 《천리마를 탄 인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천리마 운동을 낳게 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오늘 7개년 계획의 거창한 하반기 전투를 앞두고 천리마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는 것이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들을 가장 훌륭히 리용하고 고도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 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전 인민적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인민 대중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온갖 창조적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될 때에만 일어 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은 력사 상 처음으로 높이 발양되게 된다. 그것은 이 제도하에서는 국가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 대중의 창조력은 그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 나가려는 각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에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이다.

자력 갱생—이것은 무엇보다도 앉아서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진공적 정신이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풍부히 하는 창조적 정신이며,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단 시작한 일을 끝까지 관철하는 전투적 정신이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혁명적 정신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하게 될 때 인민 대중은 있는 것을 더 잘 리용하고 예비를 더 잘 찾아 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킬 수 있다.

인민 대중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양하도록 하자면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어떤 기존 권위나 공식,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인민 대중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자각과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책임성을 높이 간직하게 되며 모든 사업에서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한 문제는 혁명 정세가 비상히 복잡하고 또 과거로부터 락후한 유산을 물려 받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싸우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주동적으로, 대담하게 추진시킬 수 없었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우선 과거 오랜 기간의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일부 사람들에게 남아 있던 민족 허무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뿌리 채 뽑아 버리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 왔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의 정당성은 우리 인민이 자기 앞에 제기된 모든 난관들을 성과 있게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온 데서 명백히 실증되였다.

1956년 말과 1957년 초에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사회주의 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었다. 또한 국내외의 원쑤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진출하였으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당을 공격하여 나섰다.

이 때 가장 날카롭게 제기된 문제는 당 주위에 집결된 인민 대중의 혁명적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난관을 타개할 수도 없었으며 원쑤들의 준동도 격파할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로동 계급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하에 도처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낡은 기준, 낡은 방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면서 천리마 운동을 일으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원쑤들의 온갖 시도를 산산이 분쇄하여 버렸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천리마 운동을 낳은 중요한 정신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천리마 운동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남이 해결하지 못 하는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며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

면 남보다 빨리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당의 일관된 교양과 천리마 운동의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은 1930 년대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심장으로 파악하게 되였으며 실생활에 구현하게 되였다.

천리마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부족한 것은 풍부히 하면서 기술 개건의 과업을 촉진시키는 데서 높이 발양되였다.

우리의 로동 계급이 자그마한 농기계 공장과 자동차 부속품 공장에서 각종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을 생산해 냈으며 보통 기계 공장에서 8 메터 타닝반과 3천 톤 프레스를 비롯한 대형 공작 기계들을 련'이어 만들어 낸 혁신적 성과들은 바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낳은 산물이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 간직하고 일을 더 많이 하며 남보다 더 빨리 나가기 위하여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과 인간 개조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면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천리마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후 당 사업이 사람들과의 산 창조적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되고 공산주의 교양이 더욱 심화되는 행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업, 농업, 운수, 건설,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락후한 것을 쓸어 버리고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 운동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 로선으로 되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천리마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천리마 운동이 전개된 후 불과 몇 해 동안에 우리는 지난날 그 어느 때에도 가져 보지 못 한 자기의 민족적 밑천, 우리 인민이 스스로 자기의 살림을 꾸려 나가며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이미 선진적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나라를 발전된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과 도덕적 풍모에서도 일대 비약이 일어 났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함이 없이 끝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미풍이 발양되게 되고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한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불패의 것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 나 안착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멀지 않아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생활 필수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인민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천리마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높은 고지에 올라 섰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욱 휘황한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놓았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와 경험은 극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국내의 모든 자원과 예비를 동원하고 인민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축성하고 인민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은 것도,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및 정치적 열성을 부단히 제고시킬 수 있은 것도 바로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여 꾸준히 투쟁한 결과이다.

오직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수 있었으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 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을 조선 인민 자신의 힘으로 강력히 추진시키려는 근로자들의 불 같은 지향에 의하여 천리마 운동과 같은 위대한 전 인민적 운동이 발기되고 부단히 심화 발전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립장에 확고히 서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못 하고 남이 도와 주기만 기다리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게 되며 자기 나라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적극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지 못 하게 된다.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 결정적 대책으로 된다.

날로 강화되는 북반부의 혁명 력량에 고무된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

으로 나라를 통일시킬 것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반미 구국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나라가 분렬되고 상반되는 두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오직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반동 제도 하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운동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과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방침의 생동한 구현이다.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천리마 기수들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켰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고 있다.

이 운동의 경험은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과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적을 훌륭히 실현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이 발생한 때로부터 7 년이 경과하였으며 이 운동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킨 1958년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도 이미 5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에 천리마 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생활을 통하여 남김 없이 확증되였으며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정신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 앞에 제기되고 있는 혁명 과업과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이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 이미 축성된 경제 토대를 더욱 정비하고 보강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과업과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실현하여야 할 혁명 임무가 나서고 있다.

국제 국내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을 좌절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며 우리 인민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천리마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1956년 말에 우리 인민이 천리마 운동을 일으켜 경제 건설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외의 원쑤들의 책동을 격파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장성한 력량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급속히 촉진시키며 실제적 성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시도를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혁명적 대책으로 된다.

천리마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발생 발전시키는 데 크게 작용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다.

오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특히 기술 혁명을 더욱 급속히 전개하며,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로동 조직을 부단히 개선하고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구현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확고히 축성된 자립적 경제 토대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기계 설비들, 그 어떤 정밀 기계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다양하게 생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천리마의 고삐를 늦춤이 없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온갖 권태증과 해이성, 안일성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며 이 운동을 가일층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천리마 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난관도 성과 있게 물리치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 체계

김 종 완
김 정 일

1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체계를 수립하고 '그것을 부단히 완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체계가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의 잠재력을 경제 건설에 최대한 동원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개선은 관리 체계와 함께 관리 방법, 일'군들의 지도 수준, 대중의 참가 정도에 의존한다.

그런데 관리 체계는 국가적 지도의 개선을 위한 다른 요인들을 규정하는 초석으로 된다. 일'군들이 기업 관리에 대한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도, 일'군들의 지도 능력을 생산 지도에서 충분히 발휘시키는 문제도, 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형태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기업 관리에 더욱더 광범히 참가시키는 문제도 결국 관리 체계를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달려 있다.

관리 체계는, 국가가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 공간이다.

그러므로 부단히 이루어지는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게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따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관리 체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관리 체계의 부단한 개선은 인민 경제의 균형을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생산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대중의 무궁 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경제 발전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관리 체계가 가지는 이와 같은 의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해방 직후 처음부터 인민 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체계를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 하였던 형편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림시적으로 조직되였던 각 공장(광산)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였다.

그러나 북조선 산업국이 조직되고 이어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면서부터는 공장, 기업소들을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집결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중요 산업 국유화를 력사적 계기로 하여 사회주의적 관리 체계가 창설되였다. 당시 공업 분야에서는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지역적 원칙에 기초하여 처음에는 산업국—공업처—기업소 체계로 관리 체계가 조직되였으며 공화국 창건과 함께 산업국은 산업성으로, 공업처는 생산 관리국으로 개편되여 성—관리국—기업소 체계로 그것이 완전히 정비되였다.

그 후 전쟁 시기, 전후 복구 시기, 5 개년 계획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관리 기관들을 세분 확대하고 지도 력량을 이에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관리 체계의 개편이 부단히 진행되였다.

중앙 기관들의 세분 확대는 최단 기간 내에 우리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편파성을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였다.

그러나 5 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업의 규모가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문 간의 생산적 련계가 전례 없이 복잡해 지고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급격히 강화된 조건에서는 그것이 경제 관리 운영에서 기관 본위주의를 낳게 하였고 경제 건설에서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우후죽순처럼 솟아 난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전국에 조밀하게 분포된 사정은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력량을 재편성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8월 상무 위원회 결정과 그 후 당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의하여 중앙 관리 기관들이 통합 축소되고 공업 관계 성들이 공업 위원회들로 개편되였으며 관리 및 기술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지방에 파견되였다. 그리고 지방 공업을 관리 지도하는 기관인 도 지방 산업 총국이 새로 조직되였으며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지방 당 기관들의 지도와 통제가 일층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취한 이 조치의 정당성과 개편된 관리 체계의 우월성은 최근 년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던 경제 건설의 중요 과업들—완충기 과업, 1961년 주요 과업의 하나였던 알곡 100 만 톤 증산의 과업을 비롯한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명백히 실증되였다.

방대한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우리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다시 한 번 비약을 이룩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기 마련해 놓은 거대한 경제력과 기술의 힘이 경제 건설에서 완전히 발휘되도록 하며 새로운 비약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창설하는 것이였다.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선 벽두, 그러한 공간을 대안 체계에서 찾았다.

청산리 방법의 구현인 대안 체계는 전국 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곧 일반화되였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업 위원회, 도 농촌 경리 위원회,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및 협동 농장 관리 위원회로 되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공업 및 농업 부문에 수립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상응하게 심화 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대안 체계의 확립으로 하여 전국 공장, 기업소들에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중앙 관리 기관들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경제 발전의 기본 단위이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에서까지 공업과 농업을 당적 령도 체계를 통하여 지도케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공업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그리고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초한 경제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상과 같이 발전해 온 우리 나라 경제 관리 체계는 조직 원칙 상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관리 체계 발전의 전 행정에서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지역적 표식이 옳게 결합시킨 것이다.

관리 기구 조직에서 생산-지역적 원칙은 중앙 집권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 부문별로 되는 전문적 지도의 심화와 현지에서의 집중적 지도의 보장 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관리 기구 조직에서 생산적 표식과 지역적 표식이 고려되는 정도는 개별적 시기에 해결해야 할 과업과 그의 수행 조건, 기업소 수의 증대와 그의 배치 상태, 지도 일'군들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부단히 변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적 표식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함으로써만 개별적 시기에 전국적 견지에서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중심 고리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부문 간 또는 기업소 간의 필요한 균형을 계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부문의 특성에 맞게 세부에 이르기까지 파고 들어 가서 구체적이며 실속 있는 생산 기술적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선진적인 관리 체계를 창설하는 당시에 있어서나 그 후 성, 관리국을 분립 또는 통합하는 전 행정에 있어서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지역적 원칙을 계속 견지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현존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주권의 부문적 집행 기관으로서 중앙 공업을 지도하는 중앙 관리 기관들인 공업 관계 성 또는 공업 위원회와 총국들이 생산적 표식에 따라 일정한 부문만을 담당 지도하도록 조직되여 있으며 그 내부에는 주로 생산적 표식에 따라 더욱더 전문화되여 동종 부문 기업소만을 담당 지도하는 생산 관리국들이 조직되여 있다. 생산 활동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거나, 생산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여 있거나 또는 제품의 특성이 지역별로 다른, 중앙 공업 부문에서만 지역별 표식을 고려한 관리국들이 조직되여 있다. 그리고 지방 공업에서는 해당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체의 사명과 관련하여 경공업 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지역적 표식에 따라 각 도별 지방 산업 총국과 도내의 지구별 지방 공업 경영국들이 조직되여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적 원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합리적인 형태로 된다.

만약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며 또 실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 분권화》《원칙》에 의하여 경제 관리를 조직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경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적 지도를 실현할 수 없게 하며 또한 불가피하게 생산 자원과 기술 력량을 분산시키고 기업소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은 결국 경제 발전에서 자연 발생성을 낳게 하며 국가 경제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

우리 나라에 확립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의 이 특성은 더욱더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통일적, 중앙 집권적 장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당은 대안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현대적 공업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 지도를 실시하는 데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대안 체계에서는 생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가 확립되였고 기사장의 지도 하에 생산과 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참모 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정연한 생산 보장 체계가 도입되고 그리고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방법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대안 체계에서는 기업소가 하나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 체계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였다.

경제 관리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기업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소와 생산 관리국, 관리국과 성 사이에서도 강화되였다.

이것은 인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데 대한 사회주의적 경리 운영의 기본 요구가 공업 부문에 확립된 관리 체계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 체계에서 구현된 중앙 집권제적 지도 원칙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의하여 농촌 경리 지도 분야에서도 훌륭히 실현되고 있다.

새 형태의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 력량과 기술 수단을 직접 장악하고 군내 협동 농장들의 모든 생산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게 되였다.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군내 협동 농장들에 월 작업 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며 협동 농장들의 재정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로력 관리 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도의 중심이 군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은 하나의 큰 농업 기업체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당은 최근 기계 공업성을 개편하여 새로 기계 공업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기계 공업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종래 비기계 공업성 산하에 있던 기계 공장, 기업소들이 일체 기계 공업 위원회에 이관되게 되여 그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게 되였기 때문이며 또 모든 기계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계 공업 위원회의 지도가 강화되고 생산의 전문화가 급속히 심화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 지방 산업 총국, 지방 공업 지구 경영국 체계의 정비 강화는 지방 공업 관리 운영에서 역시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케 하였다.

그것은,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내각에 직속하는 전문적인 경제 관계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놓여 있다는 데서, 그리고 지방 공업에 대한 경공업 위원회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통제가 일층 개선 강화된 데서 표현된다.

특히 최근 경공업 위원회 내에 경공업 총국이 설치되였고 경공업 위원회가 각 도 지방 산업 총국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게 됨으로써 중앙 경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가 강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공업, 농업 할 것 없이 또 중앙 공업, 지방 공업 할 것 없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경제 관리에 대한 중앙 집권적 지도가 강화되였으며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신속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에서 경제 지도에 대한 가일층의 중앙 집권화는 관리의 모든 고리들에서, 공업 농업에 대한 관리, 중앙 기관 및 기업소 관리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광범한 발양과 밀접히 결부되였다.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운영에 대중을 인입하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들이 있으며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안 체계 이전에 있어서는 주로 생산 협의회, 증산 경쟁 운동의 형태를 통하여 대중이 기업 관리에 참가했고 그 기회에 한하여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이 높이 발양될 수 있었다.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이와 같은 참가는 많은 경우 일면성을 벗어 나지 못하였다.

대안 체계에서는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가가 전면적인 것으로, 항구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안 체계에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협의제를 통하여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와 그 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령도 하에 생산자들이 계획화, 로동 행정, 원 단위 제정, 기술 관리, 제품 검사, 로임 분배 등 기업 관리의 전 부문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안 체계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단순한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관리자로, 생산의 통제자로 되였다.

이것은 대안 체계가 기업 관리에 대중을 전면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관리 형태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농업 생산에서의 농민들의 창발성과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고 있다.

새로운 지도 체계에서 농업 생산은 농장 자체의 생산 수단과 국가 소유의 생산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 생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장 자체로 남아 있다.

이것은 기업적 방법에 의한 국가로부터의 직접적 지도 밑에서 농업 생산이 진행되게 된 새로운 조건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책들이다.

경영 위원회는 농장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현존 협동 농장 제도를 철저히 존중하며, 농민들의 리해 관계에 대한 사소한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는 또한 도 농촌 경리 위원회가 종래에 농업성이 행사하던 기능과 권한을 넘겨 받고 도내 농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게 되였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서 대중적 발기, 지방적 창발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게 하며 자연 경제적 조건이 각이한 각 지방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농업을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년간 중앙 공업에 대한 지방 당 기관들의 당적 지도와 통제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일부 관리국들의 생산 현장에로의 이동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중앙 공업 관리에서 지방적 창발성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양을 가져 왔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 공업 관리 운영에서 지방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58년 8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가 있은 이후 지방 공업 관리에 대한 지방 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 강화되였고 적지 않은 기업소들이 중앙으로부터 도 지방 산업 총국 산하에 이관되였으며 지방 공업의 관리 간부 대렬과 기술 력량이 보충 강화되였다.

이것은 지방 공업 관리에서 지방적 창발성을 고도로 높이게 하였으며 지방 공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하였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경제 관리에 대한 당적 령도와 행정 기술적 지도의 결합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 체계에서 공장 당 위원회는 공장을 관리 운영하는 최고 지도 기관이며 생산에 대하여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대안 체계에서 당 위원회가 공장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키잡이의 역할

을 제고하는 형식을 통하여 기업 관리에 대한 당적 령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관리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과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극복하고 대중을 발동할 수 있으며 당적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경제 관리에서 분산성과 기관 본위주의를 방지하고 레닌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 수 있다.

《기업 자치》니, 《로동자 쏘베트》니 하면서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은 경제 지도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리용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의 무정부성과 혼란을 가져 오게 할 것이다.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관리에서 통일적 집중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되며 또 대중을 경제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케 하는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매개 기업소에서 당 위원회가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하고 기업소 관리 운영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방 당 조직들이 해당 지역에서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지방적 예비 동원이 생산 장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됨에 따라 중앙 관리 기관들의 행정 기술적 지도는 생산의 추동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그 제한성을 나타내게 되였다.

지방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지방적 예비를 경제 발전에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하여 행정 기술적 지도에 당적 령도를 안받침함으로써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하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이미 도 지방 산업 총국, 지구 지방 공업 경영국을 창설하고 행정 기술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한편 지방 공업을 비롯한 도내 공업 발전에 대하여 도 당 조직이 책임을 지게 하였고 또 도 농촌 경리 위원회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실시하게 하고 지방 당 조직들이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게 하였다.

특히 최근 당은 경제 관리에서 군 당 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경제 관리의 모든 고리에서 당적 지도와 행정 기술적 지도와의 결합의 원칙이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3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된다.

경제 관리 체계의 창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새로운 경험은 첫째로, 기업소 관리에 대한 당적 령도제를 확립한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기본 요구의 하나인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구체적 형태와 방법을 찾은 그것이다.

세째로, 그것은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며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창조한 것이다.

네째로, 그것은 경제 관리의 모든 단위들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확립한 것이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한편에 있어서는 지난 시기 경제를 지도하는 행정에서 우리가 축적한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 시기 조성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창조물이다.

우리 당은 새로운 관리 체계의 창설을 통하여 기업 관리 형태와 방법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 조건에 부합되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의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원칙에서 관리 지도 체계를 정연하게 재편성하였다.

경제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령도제의 실시,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 경리 운영 문제를 리론 실천적으로 완성하는 면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된다.

그러면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우월성은 어디 있는가.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은 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가 보장되게 되였다는 데 있다.

새 체계에서 과학적인 지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관리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협의제가 강화된 결과에 보장되였다.

사회주의 경제는 엄격한 타산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인민 경제의 합리적인 균형도, 생산의 부단한 장성도 보장할 수 없고 많은 자재, 로력, 자금을 랑비하게 된다.

특히 인민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부문 간, 공정 간 련계가 전례 없이 복잡하게 된 오늘의 조건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새로운 관리 체계에서는 집체적 령도제가 보장됨으로써 경리 운영을 타산하는 이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였다.

새 체계에서 과학적인 지도가 보장되게 된 것은 또한 관리 체계와 관리 방법들이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 가는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결과이다.

공업, 농업할 것 없이 오늘 모든 부문에서 생산 과정은 곧 기술 공정이며 생산의 발전에 따라 복잡한 수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결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지도 사업에서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주는 청산리 방

법을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그 자체가 아래에 내려 가는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였기 때문에 이 절실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계는 생산 지도 기능과 기술 지도 기능을 통일시키고 있는 만큼 지도 사업에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층 제고되였다.

또한 대안 체계에서는 공업 관리의 모든 단위 특히 공장적 단위에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는 군 단위로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의 창설이 생산 단위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타산과 높은 기술에 기초한 산 과학적인 지도를 주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경제 관계에서, 도덕 의식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을 전제로 하여 창설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생산 관계에 작용하여 그의 낡아진 개별적 측면들을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하였다.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창설로 인하여 공업 부문의 생산 관계에서는 주로 생산자들 간의 분공 관계, 생산 경영 상 관계에서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에서와 생산자들 간의 활동 교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나게 되였다.

또한 새로운 관리 체계는 공산주의적 기업 관리의 요소를 풍부히 내포하고 있는 자체의 본질과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도덕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변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는 자기들이 생산 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일층 높아 가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 혁명 과업을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강화되고 있다.

확립된 관리 체계의 우월성과 토대의 개별적 측면 및 상부 구조의 일부 요소들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가 거대한 힘과 생활력을 낳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우월성을 대중이 인식하게 되고 그 체제 하에서의 생활에 그들이 익숙하게 됨에 따라 생산력 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관리 체계는 더욱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새로운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오늘 도처에서 기술 혁신 운동이 촉진되고 있으며 현 시기 주되는 혁명 과업의 하나로 되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관리 체계의 위력은 6 개 고지 점령과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생산력 장성에서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

전 정 희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지금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혁명은 모든 나라들에서 수행하게 되는 하나의 력사적 과정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락후한 농업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업으로 제기된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산업 혁명이 수행되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 나라는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하여 오래 동안 매우 침체하고 락후한 농업 국가로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기술 혁명을 하여야 한다.》(김 일성, 《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오랜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 력사적으로 조성된 나라의 기술 경제적 락후성을 퇴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기술 혁명에 앞서 경제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수행하고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 중공업의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그 관철에로 인민의 혁명적 열성과 창발성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이 과업 수행에서 이미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우리 당의 세련된 혁명적 령도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현이다.

1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체를 확립하고 자력 갱생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철저히 복무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의 이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을 통하여 생산의 기술적 장비 수준을 높이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새 부문을 창설하고 부문 내부 구조를 개선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재생산의 순조로운 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새 기술을 도입하는 과업까지 실현케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하 우리 나라 공업은 원료 반제품 생산에만 치우쳤고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은 간단한 부속품조차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 하였으며 농업도 매우 락후하였다. 인민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손로동과 중세기적인 생산 방법에 의거하였으며 혹 생산이 현대화되여 있다고 하는 부문에서조차 대체로 기계 기술이 도입된 것은 극히 부분적인 공정들에 불과하였다. 현대적 공업 생산이 요구하는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도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 인민 경제가 기술적으로 매우 락후하였던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지 않고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할 수도 없으며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도 없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29~430 페지)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을 추진시켜 새 부문의 창설과 부문 내부 구조의 개선 및 원료 기지 조성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공정과 기계 동력에 기초한 새로운 로동 수단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였다.

당이 기술 혁명의 내용을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로, 농업 부문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였다.

기술 혁명의 이러한 내용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분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 부문들을 부단히 창설하여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인민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 그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나라의 자연 부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새 원재료의 창조 및 그 합리적 리용을 촉진하여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창설할 수 있었다.

당은 이와 같이 기술 혁명 내용을 자립 경제 건설에 부합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 나라의 자연 및 원료 조건에 맞게 실현하며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만들어 냄으로써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기술 혁명의 구체적 실현 방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기술 혁명을 자립 경제 건설에 복무시킬 데 대한 요구와 경제 발전 수준, 내부 예비 등을 중요하게 타산하였다.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소여 경제 발전 수준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며 기술 발전의 경제적 효과성을 훨씬 높이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하루 빨리 해방하는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에로 이행하는 점차적 방법을 견지하였으며, 수단과 자금을 동원함에 있어서는 현대적

기술 수단과 재래식 기술 수단을 배합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기술 혁명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도상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술 혁명 수행에서 그 발전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 중심 과업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술 혁명의 첫 시기에 현대적 기술 수단이 부족하고 기술 간부가 많지 못 하였으며 기술 경험이 어렸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기술 혁명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당은 기술 혁명 발전 단계를 두 단계로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기술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방향에서 기술 혁명의 인민 경제 부문별 방향과 그의 내용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서 우리 앞에 제기된 중요 과업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것이 곧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로 되며 기술 발전의 지탱점으로 되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앞으로 전면적 기술 혁명 전개의 기초로 될 기본 공정들에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최단 기간 내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와 기술 혁명의 강력한 거점으로 되는 중공업, 특히 그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를 창설 강화하였으며 많은 기술적 경험을 축성하였다.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서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방침은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의 축성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금후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였다.

《만일 우리 당이 경제 건설에서 정확한 로선을 세우지 않고 자립적 중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지 않았더라면, 만일 우리 당이 그처럼 막대한 정력을 기울여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를 창설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전면적 기술 혁명이란 말조차도 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김 일성,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실 상 현대 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방면적인 강력한 중공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가지지 못 하거나 제한된 몇개 중공업 부문만 가지고서는 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더구나 기술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문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기술 발전의 기초인 중공업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락후한 기술 경제적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 날 수 없으며 따라서 현대 사회가 달성한 과학 기술의 성과를 향유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를 주동적으로 도입하면서 전면적 기술 혁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의 첫 단계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 둘째 단계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기본 공정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과 모든 공정들에서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은 기술 혁명의 내용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주는 효과, 그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 기술 발전에서 그가 노는 역할 등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공업 부문의 기계화, 자동화와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기술 혁명의 기본 고리로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 공업 부문에서는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고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이에 전기화를 따라 세우고 화학화를 위한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수리화에 력량을 집중하고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기계화를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면적 기술 혁명 단계에 들어 서면서 공업 부문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공정들에서 기계화를 완성하고 자동화를 광범히 실시하며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고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며 농업 부문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기계화를 완성하며 화학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술 혁명 수행에서 군중 로선의 관철—이것은 인민의 힘과 혁명적 열의를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우리 당의 기술 발전 정책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당은 기술 혁명 수행에 있어서 그 규모의 방대성과 급속한 속도로부터 출발하여 처음부터 전 군중적 운동으로 그것을 촉진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대중적 지혜와 창발성이 요구된다.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해도 좋다면 적은 힘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장구한 시일이 걸린 일을 불과 몇 해 동안에 실현하려고 하는 만큼 전체 근로 대중의 창조적 힘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 혁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생산자들 호상간, 로동자와 기술자, 과학자 간, 기업소 및 부문 호상간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군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이에 의거하여 이 운동을 조직화하고 계획화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 수행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로 된 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였다. 이를 타개하지 않고는 기술 혁명에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동원할 수 없었으며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당은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과 군중의 대담한 발기를 지지하여 실생활에 구현하는 적극적 실천 활동을 밀접히 결부함으로써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완전히 타파하였다. 이것은 기술 혁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확고한 사상적 지반으로 되였다.

대중의 열성과 창조성은 높은 문화 기술 수준과 결합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중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함이 없이는 기술 혁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수 없다.

당은 모든 근로자들이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데 대한 기본 구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문화 혁명을 기술 혁명과 병행하여 추진시켰다. 이것은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는 대중 자신의 주체적 능력의 소유를 최대한으로 촉진하였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사상적 지반의 강화,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합리적 형태와 결합될 때 강력한 물질적 힘으로 나타난다.

우리 당은 기술 혁신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련결시키고 기술 발전을 위한 투쟁을 그의 중요 내용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기술 혁신과 생산 활동 및 근로자들의 교양 개조 사업을 결합시켜 기술 발전에 대한 생산의 적극적 반작용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적 협조의 기풍을 발양시킴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투쟁에서 자신도 개조하면서 생산과 기술 발전을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게 한 가장 합리적인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 형태이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강력히 전개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정한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였고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기술적 지도 력량과 작업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다.

당은 이러한 조건에 의거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기술 발전을 작업반 단위로 계획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에로 발전시키였다. 이것은 기술을 결합된 생산자 집단에 의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요구를 보다 철저히 관철시킨 것으로서 기술

혁명 수행에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력을 더 잘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돕고 서로 배우며 경험과 과학이 진정으로 결합되여야만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김 일성,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는 데로부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과 로동자들의 경험에서 새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배격하는 한편 기술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지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간의 창조적 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기업소 및 부문 호상 간의 협조를 강화 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환절이 호상 긴밀히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한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은 다른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대적 기술 혁신 운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추진시켜 기업소 및 부문간 기술 발전에서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소 간의 호상 협조를 밀접히 하고 전 국가적 립장에서 온갖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게 하였다.

2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이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기술 발전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과거 산업 혁명이 제기한 순수한 기계 혁명 과업의 범위를 벗어 나서 현대 과학 기술 혁명의 과업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과거 산업 혁명을 수행하지 못한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제기된 것 만큼 주로 기계 혁명을 그 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 조건 하에서 즉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까닭에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가 광범히 도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그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여 진행되고 있다.

즉 기술 수단의 도입과 제작에서는 간단한 도구의 생산으로부터 현대적인 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8 메터 타닝, 3천 톤 프레스,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 기관차의 생산 등 최신 기계 설비의 제작과 도입에로 직접 이행하였다. 기술 공정의 개선도 개별적 공정의 부분적 개선으로부터 전반적 공정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하면서 개별적 공정 및 수개 공정의 개선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전반적 공정의 개선에로 이행하고 있다. 기술 혁명의 중요 내용인 기계화 및 자동화는 반기계화와 종합적 기계화, 부분적 자동화와 완전 자동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일련의 기업소들에서는 손로동에 의한 생산 공정으로부터 직접 자동화에 의한 생산 공정에로 이행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 과학 기술 혁명의 중요 내용들로 되고 있는 자동 공학, 전자 공학이 인민 경제에 도입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현대 기술 발전에 의하여 주어진 가능성들이 최대한으로 리용됨으로써 기술 수준이 낮은 생산 과정은 보다 높은 수준에로 제고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혁명의 빠른 속도—이것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 과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기술 혁명의 높은 속도는 현대적인 대규모 기업소 건설, 새로운 기술 수단의 창조 및 도입, 기술 혁명 내용의 실현 속도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

최근 5~6 년간에만 하여도 황해 제철소, 흥남 비료 공장,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덕천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1,500 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 기술 토대 우에서 복구 신설되였으며 세계 1 등급의 비날론 공장은 불과 1 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되였다. 각종 기술 수단의 도입은 3 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5 개년 계획 기간에 2 배 이상으로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기술 수단의 도입이 보다 급속히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강력한 전개에 기초하여 부속품 생산으로부터 기계 생산에로, 중 소 기계 생산으로부터 대형 및 특수 기계 생산에로의 이행이 전후 불과 수년 동안에 진행되였다. 이것은 기계 기술 발전 속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을 수십 배로 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 및 합리화 건수는 공업 부문에서만도 1956년에 비하여 1960년에는 3 배 이상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일련의 힘든 작업들에서 기계화된 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의 비중은 1957년에 비하여 1962년에 20~30% 며 제고되였다. 기술 발전의 이러한 속도는 기술 혁명이 심화될수록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천리마적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지난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무런 토대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현대적 기술을 마음 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우선적으로 장성함으로써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1954~1962 년간에 22 배로 장성하였으며 각종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1962년에 92%에 달하였다.

강력한 기계 제작 공업에 기초하여 전력 공업, 야금 공업,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새로운 부문이 창설됨으로써 자체의 기술, 원료, 동력 자원에 기초하여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인민 경제에서 기계화 및 자동화, 전기화가 급속히 추진된 결과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특히 인민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에 기술 수단과 기술 력량이 집중됨으로써 이 부문에서 기계화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오늘 공업 부문에서 힘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련의 중요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60~90%에 달하고 있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들이 기계의 적용에로, 가공 공업 부문에서는 많은 작업들이 기계 체계 도입에로 이행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대규모 중앙 공업에서는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이 부문들에서 자동화가 광범히 도입되고 있다. 특히 기계 제작, 전력 및 화학 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 부문들의 일련의 기업소들은 완전히 자동화되였다.

과거 원시적인 농기구와 중세기적 생산 방법이 지배하던 농업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다.

농촌 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본격적으로 착수된지 불과 2~3 년간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농업 기계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62년에 총 경지 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은 1956년에 비하여 약 3.5 배로 장성하였으며 일련의 중요 농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비상히 높아졌다.

1961 년말 현재 동력 및 축력에 의한 기경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95.7%, 탈곡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81.2%, 수송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85.7%로 각각 제고되였다.

건설 부문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주로 손로동과 등'짐에 의거하던 건설 작업들이 대대적으로 공업화되고 기계화되였다. 1960년에 조립식 건설의 비중은 산업 건설에서 20% 이상, 주택 건설에서는 약 60%에 달하였으며 중요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토공 작업에서 53%, 적재 적하 작업에서 47.2%, 수직 운반 작업에서 86.2%, 콩크리트 혼합 작업에서 69.6%로 제고되였다.

기계화와 함께 철큭쓰에 의한 제철법, 구단광에 의한 선철 생산법, 비날론과 염화 비닐의 생산, 석탄 가스화, 갈, 옥수수 및 벼'짚에 의한 인조 섬유의 생산, 벼'종자의 육종과 종자 개량, 산소 취입법, 수력 채탄법 등 선진적 기술 공정이 생산에 광범히 도입되였다.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의 제고와 선진적 생산 방법의 광범한 도입에 의하여 각종 기술 경제적 지표들이 또한 개선되였다.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 주물 직장 생산 면적 평방 메터당 생산량은 2 배 이상, 착암기 대당 탁광량은 170%로, 평로 로저 평방 메터당 1 주야 평균 강철 생산량은 154%로 각각 제고되였다.

인민 경제의 전기화에서도 결정적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 부문의 로동자 1 인당 전력 소비 수준은 이미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그것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결과 전체 농촌 리의 92.1%, 농가 호수의 62%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농촌 기계 동력 구성 중 전동기의 비중은 1960년 초에 약 40%에 달하였다. 탈곡, 사료 절단 및 분쇄 등 일련의 고정 작업들에서 전기 리용은 1961년말 현재 총 작업량의 80~90% 이상 달하였다.

인민 경제의 전기화 수준은 급격히 제고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 리용의 구성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인민 경제의 전력 총 소비량 중 기술 공정용 소비는 1949년에 78%였는데 1960년에는 47.5%로 저하되였으며 이 기간에 동력용 전력 소비는 25%로부터 49%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것은 기술 공정용 전력 소비에 편중되였던 전력 소비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기화를 현대 전기 리용의 방향에서 더욱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비상히 강화된 결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부단히 장성되고 생산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작업에서 손로동의 비중이 축감되고 기계로 작업하는 새로운 직종이 출현함에 따라 로동자, 농민의 직종 구성에서 역시 근본적 변화가 일어 났으며 그들의 로동을 경감시키고 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 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기술 혁명 특히 화학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각종 화학 제품과 화학적 기술 공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달성되였다.

합성 섬유, 합성 수지 공업의 창설로 방직 및 일용품 생산을 비롯한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다.

1962년에 벌써 우리 나라 섬유 원료 중에서 화학 섬유의 비중은 40% 이상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1959년의 세계 화학 섬유의 평균 비률보다 거의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된다. 일용품 생산 원료 중에서 각종 합성 수지를 비롯한 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생산이 물리 화학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공업 부문들에서는 철콕스, 무연탄 가스화, 산소 등 각종 화학 제품과 화학적 기술 공정들이 광범히 도입되여 생산을 집약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없거나 부족되는 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경리에서 화학화도 급속히 진행되였다. 1949년에 비하여 1961년에 화학 비료 시비량은 약 2 배로 장성하였으며 각종 농약들의 공급량도 현저히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인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켜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를 실현하고 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점차 보조적인 작업 행정 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자동화에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 부문에서는 지대적 조건에 맞게 각종 농기계들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화학화를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승리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현대성과 우리 문학의 성과

천 세 봉

지난 기간 우리 문학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참으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문학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문학 예술에 대한 당의 정확한 지도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당은 력사적 변천의 매 단계에서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확고한 기치밑에 당성과 인민성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

오직 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문학은 자기 발전의 매 단계에서 형식주의, 자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문예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우리 문학의 특징은 그 전 과정이 현대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데 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게—이런 중요한 사상이 해방 후 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에 굵게 관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성과는 현대성의 구현에서 이룩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성—이것은 작가에 의한 현실의 적극적 탐구이며 생활적 본질의 진실한 반영이다. 현대성의 개념은 광범하며 그것은 인민성과 긴밀히 결합되여 있다. 왜냐 하면 바로 인민성의 개념 속에는 작가에 의한 거대한 사회적 문제의 제기와 인민적 리해 관계에 상응하는 그 문제의 해결 그리고 작품에 대한 광범한 독자 대중의 리해성이 포괄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지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인민성, 현대성의 견지에서 출발하였다.

해방 후 초기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일련의 결정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문학 예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된다. 이 연설에는 문학의 인민성, 현대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대중 속에 들어 가서, 대중을 찾아 가서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의 요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작가, 예술인들에게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문학이 인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며 무엇을 어떤 내용으

로 창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실로 해방 후 우리 문학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있어서 싸우는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반영함으로써 우리 혁명에서 《강력하고도 예리한 투쟁 무기》로 또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게 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 문학에서 생생한 현대성으로 일관된 주제는 우선 새 사회 건설에 궐기한 우리 인민의 앙양된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 개혁들이 실시되고 낡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사회 생활에서 제거되여 갔다.

이 중요한 사변들이 우리 문학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일어 나는 우렁찬 삶의 노래는 작가들의 심장을 격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현실적 주제가 우리 문학 발전을 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 리 기영은 장편 소설 《땅》에서 로동당의 혜택으로 일생 처음 토지를 분여 받은 조선 농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 주었다.

소설의 주인공 곽 바위는 우리 문학에서의 새로운 인간이다. 그는 토지를 분여 받음으로써 자기 땅의 주인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작가는 곽 바위의 형상을 통해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간의 창조적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 주었다.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동을 찬양한 작품들로는 리 북명의 단편 《로동 일가》, 박 웅걸의 단편 《류산》, 황 건의 단편 《탄맥》, 송 영의 희곡 《자매》 기타 수 많은 서정시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을 특징 짓는 것은 평화적 건설 시기 우리 로동 계급의 헌신적 생산 투쟁이며 로동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태도이다.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자— 바로 이 사상이 이 시기 문학 작품들 속에 격류처럼 흐르고 있다.

로동의 주제— 이것은 평화적 건설 시기의 우리 문학에서 가장 중심적이며 중요한 주제이다.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인민의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로동을 찬양하면서 어데까지나 그 로동 과정에 의하여 변천되는 인간 그리고 그 창조적 로동으로 말미암아 발전되고 형성되는 인간의 정신적 미를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적 요구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문예 로선에 정확히 립각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의 긴절한 사회적 문제를 대담하게 취급하며 새로운 인간들을 탐구하고 시대의 전형적인 사변들과 주인공들의 생활을 통해서 인민들을 로동과 투쟁에로 고무하였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의 현대성이 있으며 그의 당성과 인민성이 있는 것이다.

평화적 건설 시기의 문학이 현대성 구현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의 하나로서 조 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서사시는 해방 후 우리 시 문학 발전을 위하여 혁신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특히 이 작품의 주제적 생신성과 관련된다.

서사시의 작자는 조선 인민의 수령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사들을 다함 없는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노래하였다.

우리 인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15 개 성상을 백두 밀림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전설적 항일 빨찌산들을 우리 문학에 반영한다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현대성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도 성과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의 전투적인 힘은 미제 침략자들을 격퇴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더욱 뚜렷이 발양되였다.

로동당에 의하여 훈련되고 육성된 우리 작가들은 한 손에 펜을 들고 다른 손엔 총을 들고 화선으로 달려 갔으며 인민군 전사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영웅적 위훈을 노래하였다.

고지의 용사들에게 애국적 위훈을 고무함에 있어서 또한 미제 원쑤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의 감정을 배양함에 있어서 우리 시인들의 목소리와 우리 작가들의 단편 소설들이 얼마나 위력하였던가! 전사들은 우리 시인들의 노래에 고무되면서 돌격전으로 나아갔으며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전호에서 잠시 휴식하는 짬에도 예리하고 전투적인 단편 소설들을 열독하였다.

우리 문학은 문'자 그대로 전투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복무에 대해서 높은 궁지와 영예를 느끼고 있었다.

전쟁 기간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일련의 교시들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앙양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1951년 6월 30일 작가, 예술인들과의 담화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문학의 전투적 사명에 대하여, 작가들의 세계관과 창작적 기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교시를 하였다.

특히 이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조해서 인민을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는 것은 그들의 고상한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전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집단적 영웅주의, 애국주의를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인민의 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 교시를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창작을 진행하였다.

박 웅걸의 단편 《상급 전화수》, 황 건의 단편 《불타는 섬》, 윤 세중의 단편 《구대원과 신대원》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작가들은 인민 군대의 강철같은 투지와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을 힘 있게 반영하였다.

이 시기 우리 시 문학이 발휘한 위력

을 장악한 후에 청군의 반격에 대비하려고 왕궁 호위를 위해서 일본군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갑신 정변과 관련된 너무도 초보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정변 실패 후의 사실을 들어 보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사》의 그릇된 론단을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 공사 다께소혜는 조선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된 김 옥균 일행이 인천 일본 령사관으로 피난하려는 것마저 거부하였으며 체포될 위험에 직면하여 해외로 피신하려는 그들이 일본 기선 《천세환(千歲丸)》에 올라 타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 심지어 선장과의 별도 교섭으로 승선할 수 있었던 김 옥균 일행에 대하여 다께소혜는 퇴선을 강요하였다. 오직 선장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서 비로소 김 옥균 일행은 일본으로 망명할 수가 있었다.

김 옥균 일행이 일본에 망명한 후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박해를 계속하였다.

그것은 김 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지도 인물들이 의연히 개혁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나라의 자주 독립과 부강 발전을 기도하는 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되여 있었으며 침략자들의 무서운 적수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김 옥균의 재거 시도가 다시 적발되자 일본 정부는 1885년에 그를 일본 령토에서 강제 퇴거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려비가 없어 떠나지 못 하고 요꼬하마(橫濱)에 머물러 있던 그를 태평양의 절해 고도인 오가사하라(小笠原)에 비법적으로 정배 보내였고 2년 후 다시 북해도 벽지에 강제 이주시키고 감시하였다. 일본 당국은 이렇듯 굴욕과 수난의 생활을 그에게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 옥균 등 개화파 지도자들을 살해할 음모까지 계통적으로 꾸미고 있었다. 일찌기 1885년 그의 일본 망명 직후에 일본 외무상 이노우에(井上)와 일본 주재 청국 공사 서 승조(徐承祖) 간에는 김 옥균을 중국 상해 조계로 유인하여 살해할 데 대한 밀모가 진행되였었다. (《중일 교섭 자료》 권 9, 19~25 페지 참조) 결국 이 흉모는 1894년에 가서 조선, 일본, 청국의 세 나라 반동파의 공모 하에 실현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갑신 정변이 일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일어 난 부르죠아 개혁의 시도였었으며 김 옥균 등의 개화파 지도자들이 친일파가 아니라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력사적 현상을 그 사회 경제적인 기초와 분리하여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당시의 사료에 대하여 아무러한 지식도 없이 력사에 경솔히 대하는 사람들만이 갑신 정변을 일본인들의 조작으로 개화파의 지도자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망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 세계사》에서는 1919년 3.1 인민 봉기까지에 이르는 우리 나라 부르죠아 민족 운동 시기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오유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엄중한 착오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전개된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 력사를 《전 세계사》가 자기의 서술 대상에서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조선 관계 부문을 력사적으로 체계화하는 립장에서나 그 시기 세계사 전체를 편찬하는 립장에서나 다 같이 허용될 수 없는 가장 엄중한 착오로 된다.

《전 세계사》 9권에서는 1924~1939년간의 세계 각국의 력사가 서술되고 있다. 이 시기는 10월 혁명 직후의 전 세계적인 혁명적 앙양기(1918~1923)에 뒤'이은 자본주의의 일시적 부분적 안정기(1924~1928)와 1929~1933년 세계 경제 공황 시기 및 제 2 차 세계 대전 준비기(1934~1939)를 포괄한다.

이 시기 세계사의 기본 특징은 국제 독점 부르죠아지들이 파시즘의 수립과 제국주의 전쟁의 도발에서 첨예한 모순의 출로를 찾게 됨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더욱 치렬한 투쟁의 불'길이 일어 났다는 데 있다. 이러한 력

사 발전의 기본 특징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족 운동 시기가 종말을 고하고 로동 계급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지도적 력량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력사적 시기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쏘련 및 중국에 대한 전쟁 준비와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 수행에 따라 식민지 통치가 류례없는 횡포성을 띠게 된 환경 속에서 로동 운동이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급속히 장성하였고 그 영향으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비상히 고조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은 청소한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인민 대중은 전고 미문의 간고한 정세 하에서도 그가 계승한 애국주의 전통과 혁명성을 남김 없이 발휘한 것으로 특징적이다.

1925년 조선 공산당의 창건, 1926년 대중적 반일 시위 투쟁으로 전개된 6.10 만세 운동과 그 이후의 로동 운동 및 농민 운동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이 일제의 야만적 폭압 속에서도 급속한 상승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였다.

특히 1920 년대 말 1930 년대 초의 혁명 운동은 그야말로 철통 같은 일제의 폭압을 박차고 일어 난 거대한 혁명적 앙양이였다. 이 혁명적 앙양의 시초로 된 것은 1929년의 원산 총 파업 투쟁이였다. 원산 일대의 산업 운수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일제 경찰의 테로적 탄압을 무릅쓰고 로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의 지원과 쏘련, 중국, 일본, 불란서 등의 로동자, 사회 단체들의 국제적인 련대성 속에서 수개월간이나 영웅적으로 전개된 이 투쟁은 각지 로동자,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로동자들의 전투적인 파업과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 났다. 1930년의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이 폭동적 투쟁으로 발전한 이후 로동자들은 《신흥 동무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전국 도처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구호 하에 각지에서 격렬한 폭동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운동의 특성은 농민과 학생들이 로동자들의 폭동적 투쟁에 호응하여 전투적으로 진출한 것이였다. 1930년 함남 단천군 농민 3천 여 명이 일제 군청과 경찰을 습격한 것을 비롯하여 폭동, 시위, 소작 쟁의 등 각종 전투적 투쟁의 파도가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 평안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휩쓸었고 간도 지방에서는 추수 폭동, 춘황 폭동과 같은 대규모적인 투쟁들이 전개되였다.

전국 학생들은 1929년 11월 전라도 광주에서의 조선인 녀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들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일제를 타도하자!》는 구호 하에 전국적으로 궐기하였다. 이 투쟁은 전국 방방곡곡의 학생들이 지어는 소학생까지도 일어 나서 싸운 전국적 반일 학생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는 로동자, 농민 대중이 들고 일어 나서 무장한 적을 폭력으로 항거해 나섰고 온 나라는 혁명 투쟁으로 들끓는 도가니로 화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세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거세찬 투쟁에 궐기한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군사적으로 준비시켜 무장 투쟁 단계에로 운동을 발전시켰다.

1932년에 우리 력사 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된 인민 혁명 무력인 항일 유격대가 창건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일제가 대륙 침략을 계기로 파쑈 테로 통치를 류례 없이 강화하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에 수다한 정규군 사단들과 그 보조 무력을 집결시킨 것과 같은 극히 간고한 조건 밑에서 진행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가 침략 전쟁의 병참 기지로 전환시킨 조선과 만주의 국경 지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압록강 류역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 투쟁과 전국의 혁명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근거지들을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는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거하면서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적들의 군사 요새지와 성시들을 련속 습격하였으며 보천보, 무산 지구, 동흥진 등 조선 지역과 안도, 훈

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실로 시 문학은 전투적인 시 문학이였다. 우리의 서정시들은 주제의 절박성(현대성)과 강한 전투성으로 해서 언제나 전사들의 변함 없는 길'동무였다.

박 세영과 안 룡만, 조 기천과 김 우철 기타 많은 시인들의 목소리는 싸우는 우리 인민과 함께 있었으며 인민을 새로운 전투와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전쟁 시기에 우리의 극 문학은 일련의 의의 있는 영웅적 성격들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적 정신을 반영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였다.

우리의 희곡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행기 사냥'군조원들이였으며 전투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전투 영웅들이였다. 우리의 극 작가들은 전쟁 시기에 전투적인 단막극들을 많이 썼으며 이 작품들은 역시 사건들의 독특성과 현실성으로 해서 쉽게 상연될 수 있었다.

위대한 사변, 위대한 시대는 우리 문학에 격동적인 현대적 주제들을 가져왔으며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영웅적 조선 인민의 풍부한 정신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할 수 있는 창작적 가능성을 주었다. 가렬한 전쟁 시기에 종군 작가로 활약한 우리의 수 많은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김 일성 동지가 1951년 6월 30일 표시에서 말씀한 대로 원쑤와의 투쟁에서 리용할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로 되였다.

우리 작가들에 의해서 씌여진 소설들과 시들, 정론, 오체르크들은 그 훌륭한 사실주의적 화폭들로써 우리 인민의 투지와 기개, 그의 애국주의적 사상을 옳게 반영하였으며 전시 조선 인민의 영웅적 모습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유감 없이 전달하였다.

여기에 우리 문학의 현대적 의의가 있으며 거대한 공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문학은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사상 예술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세련되였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이 어려운 전후 복구 건설에 착수하였을 때 우리 작가들은 곧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전후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새로운 력사적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 차 전원 회의이며 이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1953년 9월에 소집되였던 전국 작가, 예술인 대회이다.

대회 결정에는 작가들이 창작을 통해서 경제 건설에 궐기한 전체 인민들을 고무하며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배양해 주며 특히는 로동 계급의 전형적 주인공들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당의 전투적인 호소를 받들고 우리의 작가, 시인들도 건설장으로 달려 나갔으며 어제'날의 고지의 용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건설자들의 로력 투쟁을 형상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을 창조적 로동의 정신으로 고무하고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제 1 차 5 개년 계획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작가들은 근로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일반화하며 로동 계급의 전형을 심오하게 형상한 보다 대규모적인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윤 세중의 장편 소설 《시련 속에서》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저자는 로동 계급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을 묘사하였다.

《시련 속에서》의 주인공 림 태운은 갖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생산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며 그것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 당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강한 의지와 의의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되게 하고 있다.

윤 세중의 이 소설은 주제의 현대성에 있어서나 예술적 의의로 보나 우리 문학에서 로동 계급을 취급한 우수한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전후 사회주의 농촌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로는 신 고송의 희곡 《우리 마을》, 《선구자》, 리 용악의 서정 시편 《평남 관개 시초》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전후 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쟁 직후의 어려운 환경에서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농업 협동화 운동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축적된 생활 체험과 자료들에 기초해서 현대적 주제를 대담하게 일반화하는 작품들을 쓰는 한편 주제의 령역을 넓혀 우리 인민들의 과거 생활을 반영한 대형식의 작품들도 수다히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어느 것이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관해서 현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박 웅걸의 장편 《조국》, 황 건의 장편 《개마 고원》, 석 윤기의 중편 《전사들》, 신 상호의 서사시 《렬대의 기수》 등이 그러한 작품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우리 인민이 원쑤를 타승한 영웅적 위훈을 보다 큰 화폭을 통하여 보여 줌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북돋게 하며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리 기영의 장편 《두만강》 1, 2, 3 부, 최 명익의 장편 《서산 대사》, 조 령출의 희곡 《리 순신 장군》은 우리 인민의 애국적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장편 《두만강》은 19 세기 말부터 8.15 해방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그 1 부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시기의 조선 인민의 투쟁을 생동하게 묘사한 훌륭한 작품이다.

장편 《서산 대사》는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를 반영한 작품이며 희곡 《리 순신 장군》 역시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적 명장 리 순신 장군의 력사적 위훈과 인간 풍모를 생동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들은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맑스-레닌주의의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인민이 가진 높은 애국주의 정신과 그 강대하고 무진장한 힘이 원쑤를 어떻게 타승하고 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문학이 거둔 성과

는 앞에서 지적된 작품들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문학 분야에서도 리 원우의 중편 《기다리던 날》, 강 효순의 중편 《기적 소리》, 리 진화의 중편 《새는 버들' 골에 깃든다》, 김 학연의 서사시 《소년 빨찌산 서 강림》과 같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인민 경제의 거대한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한 근로자들의 미증유의 적극성—이 모든 것이 작가들의 창작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인민들의 로동과 행복한 생활을 취급한 수다한 시집들과 단편 소설들, 희곡들과 영화 씨나리오들 그리고 정론들과 실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은 인민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작가들에 의하여 창조된 긍정적 주인공들에게서 우리의 독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적 리상을 찾으며 모범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 문학은 급속히 장성하는 독자들의 미학적 요구와 당의 기대에 아직 충분히 보답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김 일성 동지는 1960년 11월 27일 작가, 예술인들에게 중요한 교시를 주었다.

이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작가들이 천리마 현실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천리마 기수들의 로력적 위훈을 보다 광범하고 심도 있게 묘사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 교시에 고무된 우리 작가들은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공장과 어촌, 농촌과 탄광으로 찾아 갔으며 그들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구상하였다.

김 병훈의 단편 《길'동무들》, 권 정웅의 단편 《백일홍》 등은 천리마 기수들의 로력적 위훈과 그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반영한 작품들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창작된 성과적인 작품들은 극 문학 분야에서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리 지용의 씨나리오 《분계선 마을에서》와 한 상운의 씨나리오 《갈매기호 청년들》은 영화로 되여 성과리에 상영되였으며 조 백령의 희곡 《붉은 선동원》은 무대에 올라 군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붉은 선동원》은 우리 연극의 현대성 구현에서 거보의 전진이였으며 우리 연극을 국외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리 동춘의 희곡 《산울림》은 천리마 현실을 경희극으로 구현하는 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우리 문학 예술의 새로운 앙양과 그의 현대성, 인민성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11월 27일 교시가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이 교시는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천리마의 현실을 계속 심오히 연구하고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신적 미를 더욱 훌륭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27일 교시의 생활력은 우리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 생활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그들이 창작에서 현대성 구현을 위하여 얼마나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는가 하는 데서 여실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문학의 힘은 바로 그 현대성의 시종 일관한 구현에 있으며 언제나 자기 독자들의 사상-미학적 수요를 기동성 있게, 더 훌륭하게 해결하려고 열망하는 거기에 있다.

현대성 구현에 대한 우리 문학의 열망은 그 주제의 확장에서 또는 다양한 생활적 주인공들의 탐구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일 투사들의 형상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형상은 우리 문학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 시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와서 혁명 전통의 주제는 광범하게 취급되였다.

근로자들을 혁명 정신으로 부단히 교양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들을 공산주의적 품성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 혁명 전통 주제의 취급은 우리 문학 앞에 제기된 절실한 과제이다.

이 주제를 취급한 많은 소설들과 서정시들이 나왔다. 특히 박 달 저 《서광》 1,2 부, 박 세영의 서사시 《밀림의 력사》, 송 영의 희곡 《불사조》, 박 령보의 희곡 《해바라기》 1,2 부, 박 혁의 희곡 《조선의 어머니》, 리 종순의 씨나리오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박 승수의 씨나리오 《미래를 사랑하라》 등은 우리 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하게 한 작품들이다.

박 달 저 《서광》 1,2 부는 1930 년대 초부터 조국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력사적 시기를 포괄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간고한 투쟁 모습을 높은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 준 작품이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령도 예술을 정면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지도 밑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의 고매한 정신과 백절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 위훈을 감동 깊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저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개의 인물이 실제 인물이며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실재한 력사적 사변들을 정면으로 취급함으로써 다른 어느 작품도 따르지 못 하는 독자적인 경지를 보여 주었다. 바로 거기에 이 작품의 특출한 의의가 있다.

시인 박 세영은 《밀림의 력사》에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노래 불렀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항일 빨찌산 시기의 위대한 수령의 형상을 감동 깊이 볼 수 있다.

작가 송 영은 희곡 《불사조》에서 주인공 리 두성을 통하여 실로 불사조와도 같이 혁명에 충실한 불요 불굴의 혁명 투사의 형상을 감동 깊이 보여 주었다.

박 령보의 2 부작 《해바라기》의 녀, 주인공 김 순실은 적들의 잔인한 고문과 간교한 술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산주의자의 지조를 지키며 자기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들의 머리 속에는 이 백절 불굴의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모습이 불멸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

독자들과 관람자들은 항일 투사들의 빛나는 형상들에서 자기 행동과 사고의 직접적인 모범을 보고 있으며 거기에서 자기들의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고무를 받는다. 때문에 우리 당 4 차 대회 총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문학 예술의 과업을 언급하면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으로 우리 세대의 인민을 교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문학 앞에는 계속 우리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의 형상과 함께 항일 투사들의 전형을 더욱 광범하게, 다양하게 창조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실로 우리 문학 발전의 모든 단계는 우리 인민의 력사적 변천과 긴밀히 련결되여 있으며 영웅적 우리 인민의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은 우리 문학의 모든 성과를 달성케 한 거창한 원동력이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내달리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더욱더 높은 미학적 리상을 가지고 우리 천리마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걸작들을 수 많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믿음직한 사상 전사로서 근로자들의 이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영예로운 자기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제 17 호 (루계 231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9월 5일　　인 쇄 • 1963년 9월 3일

ㄱ— 330562　　값 40 전

W·8

권 영벽 동지의 생애와 활동

판형 4×6 판, 페지 280 페지

이 책에는 조선 인민이 낳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이며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인 권 영벽 동지의 고결한 생애와 그의 혁명적 활동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의 전 편에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혁명 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의 지시라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기어코 수행하고야 마는 혁명 투사 권 영벽 동지의 강의한 투지와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 담겨져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산주의자는 군중을 떠나 잠시도 살 수 없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대중과 함께 고락을 나누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권 영벽 동지의 능란한 군중 공작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혁명 전통을 학습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